

투자관련 문의, IR FAQ

Dyline (다쏘 그룹)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2020년 12월 23일자 Dyline (다쏘 그룹)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과 관련하여 주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당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4월 21일 다쏘 그룹 계열의 Dyline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약 5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체신속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폴란드 정부의 방역정책상 항체신속진단키트의 사용을 불허하고 그 사이 항원신속진단키트가 개발됨에 따라 Dyline 측의 제품 주문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 계약 건은 지난 2분기, 3분기 매출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계약 해지로 인해 당사의 2분기, 3분기 매출이 취소되지는 않으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항원신속진단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사는 항원신속진단키트를 주력으로 하여 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 활발히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을 위한 FDA EUA도 준비 중입니다.

항체신속진단키트 또한 현재는 시장규모가 감소하였지만, 향후 백신 접종이 활발해 진 후에는 면역확인을 위한 용도로 다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진단전문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